

## 제7차 세계물포럼 각료선언문

(비공식 국문 번역본)

2015.4.13.

2015년 4월 13일 대한민국 경주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물포럼 ‘우리의 미래를 위한 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우리, 각국 장관들과 수석대표들은,

‘물과 위생에 관한 인권(A/RES/64/292)’,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관한 인권(A/RES/68/157)’, “생명을 위한 물” 행동 10개년(2005~2015) (A/RES/58/217)’, ‘물 협력을 위한 2013년(A/RES/65/154)’, 제하 유엔 총회 결의안과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관한 인권(A/HRC/27/7)’ 제하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을 재확인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 회의(‘리우 +20’) 결과문서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에 규정된 합의를 재확인하고,

세계가 직면한 물 관련 주요 도전요인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유엔 총회 공개작업반이 제안한 물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환영하고,

역대 세계물포럼과 부다페스트 물 정상회의가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 도출에 유의미하게 기여하였음을 인식하고 2012년 프랑스 마르세이유에서 개최된 제6차 세계물포럼, ‘해결책을 위한 시간’의 각료선언문을 재확인하고,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집단적 책임임을 인식하고,

수자원은 모든 국가, 특히,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물 안보와 관련된 도전요인들의 효과적 대응 수단으로서 수자원 계획, 공공의 참여, 인프라 및 자연 시스템의 건전한 관리에 기반하는 유역 등 모든 차원에서 선정(good governance)을 촉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역대 세계물포럼에서 인식된 물 문제의 '해결방안'에서 '실행'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장관들에게 제출된 '대구·경북 제안서'를 적절히 고려하고 주제별, 지역별 및 과학기술 과정의 다양한 기여와 노력을 환영하면서,

이 선언문의 합의사항을 국가 정책, 계획, 행동으로 옮기고, 전지구적 차원에서 물 분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 노력 강화에 대한 우리의 정치적 의지를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물이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임을 재확인하고, 2015년 이후 개발의제(Post-2015 Development Agenda)에 물 분야 단독목표와 물 관련 세부목표들을 포함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통합수자원관리와 식량 및 에너지간 균형적인 관계가 지속가능발전과 식량 및 에너지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요건임에 주목한다.

2. 우리는 안전한 식수 및 위생에 대한 인권과, 물과 위생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의 점진적 실현을 위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3. 우리는 물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사안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시 기후변화에서 물 관련 사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 우리는 유역국들이 초국경 수자원 협력 제고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을 인정한다. 우리는 호혜적 해결방안에 기반한 초국경 수자원 협력이 유역국간 초국경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효과적 관리와, 국가들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을 인정한다. 우리는 과거 및 제7차 세계물포럼에서 이루어진 약속과 제안을 보다 발전시킬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유엔이 지구적 차원의 물 분야 국제협력 증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을 주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물 관련 국제협약들에 규정된 원칙들이 유용할 수 있다.

5. 제3차 세계 재난 위험 경감 총회의 결과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국가·지역·국제적 차원에서 물 관련 재해를 예방하고 복원력과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인정한다. 물 관련 재해 위험과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 대응메커니즘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는 유역 차원의 적절한 국토 관리에

기반한 통합수자원관리가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와 계획에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리에는 자연 시스템의 건전한 관리와 적정한 물 인프라에 기반한 물 관련 재해의 예방, 복원력 및 대비태세의 강화를 포함한다.

6. 우리는 선진국과 개도국, 국제원조기관, 금융 기구, 관련 정부간기구 및 여타 이해관계자간 국제협력과 파트너십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물 관련 지구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후기금(GCF), 지구환경금융(GEF) 등 기후 관련 기구를 포함한 민관 분야간 적절한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7. 우리는 과학기술이 혁신적이고 적용가능한 기술을 정책에 적용하고, 과학·기술·정책·사례를 연계하는 효과적인 행동계획 수립을 가능케 함으로써 ‘해결책’에서 ‘실행’으로 나아가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적정한 제도적 메커니즘이 지지하는 과학 기반 공공 정책과 규정의 수립 필요성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공유한다. 우리는 특히 정보통신기술(ICT)과 스마트한 물 관리·계획간 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국가들에 특히 개도국을 위한 지식 공유, 과학적 지식 및 혁신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 자원 마련 및 투자, 교육, 훈련, 역량 강화와 물 관련 이해관계자간 협력 증대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확산을 촉구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세계물포럼에 신설된 과학기술 과정을 환영하고 이 과정에 참여를 확대하며 성과를 발전시켜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과를 지지하고, 2015년 이후 개발의제 내 물 관련 목표의 이행 및 모니터링 지침 수립의 준거로 고려할 수 있는 ‘실행 로드맵’과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을 기대한다. 우리는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을 위한 대구·경북 물 행동’ 및 관련 지방정부 네트워크와, 국회의원간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한 ‘물 입법 헬프데스크’의 설립과 관련한 진행 과정 등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과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및 세계물위원회의 제7차 세계물포럼 장관급 회의 준비와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회원국 및 관련 유엔 기구에 이 선언문을 검토용으로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끝/